



인공수정센타 설립으로 지역양돈 선도하는

# 산동지부



▲대한양돈협회 안동지부는 지난 98년 12월 13일 돼지인공수정센타 출범식을 갖고, 올 2월 1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경** 상북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시로써 서울 크기의 2배에 달하며, 경북의 중심도시 중의 하나이다.

넓은 지역 골짜기마다 농장이 분산되어 있어 질병문제가 적은 청정지역인 안동은, 양돈산업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특히 안동시가 양돈산업을 지역 중점 추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본회 안동지부와 더불어 지역 양돈산업 활성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두 양대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안동은 교통이 불편해 출하, 약품, 기자재, 종돈구매 등 양돈산업에 애로가 많다. 이에 따라 본회 안동지부는 공동출하 사업을 비롯, 약품·기자재 공동구매와 육가공 시설 유치계획을 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인공

수정센타를 설립함으로써 고능력, 고품질의 규격돈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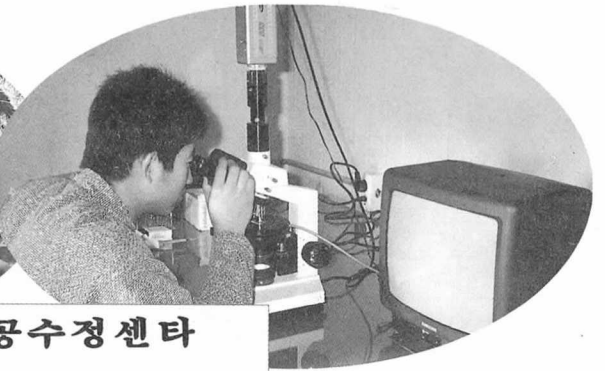


▲김건년 지부장

안동지부의 회원은 현재 39명이며, 지역 전체의 돼지두수 6만5천여두 중 70~80%에 달하는 약 5만두의 돼지를 회원들이 키우고 있어, 지역에서 돼지를 규모있게 키우는 농가들은 거의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을 위한 인공수정(AI)센타 설립

안동지부는 88년 11월에 설립되어, 현재 제4대 김건년 지부장이 지부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지



## 돼지인공수정센터

사업년도: 1998년

사업자: 대한양돈협회안동지부(대표자:김건년)

사업비: 251,800천원(보조91,350.융자43,540.자담116,910)

시설현황: - 무장운동사:43명 - 중운동15두 - 피비사26명  
- 관리자:22명 - 기자재:31종의5종

### 대한양돈협회 안동지부

부의 임원은 지부장의 부 지부장 2명, 감사 2명, 총무 1명과 지역별로 분산된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건년 지부장과 협회 회원들은 3년전부터 생산성 높은 고부가가치의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공수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인근에 인공수정센터가 없는 안동에서 지부가 인공수정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준비하여 왔다.

지부의 노력으로 인공수정센터 사업은 '98 경북 축산시범사업 2가지 중 1가지로 선정되었고, 김 지부장이 부지를 무료로 내놓고, 회원들이 자금을 각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지난 '98년 12월 13일 출범식을 가지고, 올 2월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AI센터는 인공수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 인공수정업체인 '(주)카익' 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양돈가들끼리 구성한 AI센터의 제품 신뢰도를 최상으로 높였으며, 카익의 인공수정사 2명이 상주하여 기술적인 작업을 맡아하고 센터의 운영은 지부에서 하고 있다.

### 지역의 인공수정률을 10%미만에서 90%까지 끌어올릴 계획

지부는 의성 일부지역과, 청송, 영양, 영주 4개 시군을 포함하는 안동지부 지역내 회원들을 모두 흡수함은 물론, 소규모의 비회원들을 흡수하여 지역의 인공수정률을 10%미만에서 90%까지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경

▶ 김건년 지부장이 준공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김제일 인공수정센터 실장이 돼지 정액을 살펴보고 있다.

북지역을 대표하는 인공수정센터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자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 한다.

2월 1일부로 판매·공급을 시작한 돼지 정액은 시중가격의 70%선에서 회원들에게 싸게 공급하며, 비회원들에게는 가격에 약간의 차별을 두기는 하되 일반 수정센터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정액을 공급하고 있다.

처음에는 회원들을 위한 소규모 인공수정센터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비회원들의 요구가 커 모든 양돈인들을 대표하는 협회라는 차원에서 인공수정센터 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김건년 지부장은, 이를 통해 지역 양돈농가에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며, 향후 지역의 중돈을 통일시켜 우수한 규격돈 생산 지역으로 안동지역을 탈바꿈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안동지부의 회원들은 시내에 새들어 있던 협회 사무실이 이제 1억 6백만원의 회원들 공동 출자를 통해 새로이 마련되어 AI센터와 함께 한량없는 기쁨과 성취감을 나타내고 있다.

### "장수도 (청정) 돼지" 브랜드화

안동지부는 현재 회원 한명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수도 (청정) 돼지" 브랜드를 지부에서 주도해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브랜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황토와 참나무 활성탄을 사료에 섞어 먹여 생산하는 “장수토 돼지”는 맛과 향이 뛰어나고,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소비

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많은 브랜드육이 시중에 나돌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가공업체가 만든 브랜드로써 가공업체 주도하에 돼지를 생산하고 돼지고기 유통이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김건년 지부장은 ‘장수토 (청정 돼지)’는 이왕의 달리 양돈농가에서 직접 브랜드를 등록하여, 농가가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철저한 돼지 사양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브랜드 육으로써 그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지부에서는 이 브랜드육 사업을 회원모두가 참여하는 지부사업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더 부가가치 높은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회원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98년 7월에 안동시 중앙동 ‘차없는 거리’에서 있었던 안동시 주관의 ‘안동 축산물 소비촉진대회’에서 축협이 ‘한우’, 낙농육우협회의 ‘우유’와 함께, 지부에서는 “장수토 (청정 돼지)”를 선보여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타 축산물과는 달리 시식회를 통해 장시간에 걸쳐 무려 100kg의 돼지고기를 안동 시민들에게 선보였다고 한다.

현재 시내에 3개의 식당 매장을 체인점으로



▲회원들은 직접 공동출자를 통해 마련한 지부사무실에 대한 애착이 크다. 좌에서 3번째가 이준탁 총무, 5번째가 김건년 지부장

가지고 있는 ‘장수토 돼지’는 지부 회원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농가가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큰 의미를 강조하면서, 기존의 브랜드

와는 다르게 주로 식당 유통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 AI센터, 브랜드육과 함께 육가공시설 유치 계획

안동지역은 안동시가 축산분야, 특히 양돈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부를 이를 활용해 수차례 건의를 함으로써, 지역 돈군의 고능력·고급화를 위한 AI사업과 함께, 대규모는 아니나 경북지역의 돼지들을 대상으로 한 육가공 시설을 15억 예산을 들여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시와의 교섭을 통해 사업을 확정 받았다.

일 4~500두 도축량을 예상하는 이 육가공 시설은 지부에서 하는 AI사업, ‘장수토 돼지’ 브랜드 사업과 함께 3가지 사업을 연계하여 운용해 볼 계획도 가져본다고 김건년 지부장은 조심스럽게 이야기 한다.

“모든 지부의 사업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본 결과 회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경영, 판매 등 모든 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지부장인 저를 비롯 임원과 운영위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며 결국 협회는 회원들의 단체인을 김 지부장은 덧붙

혀 말하기도 하였다.

### 가축분뇨에 대한 경종농가의 인식개선 필요

김건년 지부장은 “가축의 분뇨는 토양으로 100% 환원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리죠. 땅에도 좋고, 환경오염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화학비료의 계속적인 투여로 산성화된 땅을 이제는 축산분뇨로 비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가축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경종농가에 가축분뇨의 유용성을 대폭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앙회에서 정기적으로 있는 농촌지도소 농민교육 등에 가축분뇨의 사용 유용성을 교육케 하고, 구체적인 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김 지부장은 이야기 한다.

“농촌에서 농사짓는 노인네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화학비료를 쓰면 땅을 버린다는 말어요. 그리고 화학비료에 관해서는 시기와 사용량에 관해 정확히도 알고 있죠. 농사 짓는 분들에게 왜 꼭 가축분뇨가 필요하고, 시기마다 어느정도의 양을 넣으면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는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자원이 될 것입니다”

김건년 지부장은 이외에도 안동지역은 개인적으로 약품을 구입하기가 힘들므로 약품을 지부에서 공동으로 구입해 놓고 회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법의 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지부

김건년 지부장은 한편 회원들을 위해 IMF이후 대폭 오른 동물약품 가격의 재조정을 위하여 새로운 건적을 받아, 기존의 업체에서 새로운 업체로 바꾸는 등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일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시로부터 양돈협회 AI센터 진입도로와 정액보관고 보조를 요청하여 지난해 400만원을 지원받아 20 회원농가에 무료로 정액보관고 1개씩을 지급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회원농가에 살균램프 지원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양돈을 하는 사람이면 비회원이라도 협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양돈인들은 협회를 구심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지부장은 이야기하며, “협회에 들어오면 한가지라도 이익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회원으로 찾아오게 해야죠”라며, 회원을 늘리기

위해서도 지부를 먼저 활성화 시킬 것을 밝혔다.

또한 지부장은 사무업무를 맡고 있는 김순조씨가 6년째 안동지부에 근무하여 업무에 밝고, 협회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해 주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이제는 시집을 보내야 한다’며 사람좋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안동지역은 본회 안동지부의 힘찬 노력에 힘입어 양돈산업 발전의 기틀을 굳건히 잡아가고 있다. 안동지부의 지부장과 회원들은 안동을 국내 양돈산업의 또다른 메카로써 발전시킬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취재 : 조진현> **양돈**



▲업무에 열중하는 김건년 지부장의 모습에서 안동지부의 밝은 미래를 읽을 수 있다.